

2023 년 4 월 16 일 “여호수아(1) 가나안을 앞에 두고”(수 1:1-9)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인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실 때 세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1) 큰 민족을 이루심; (2) 너와 네 후손이 복의 근원이 될 것; (3) 땅(가나안)을 줄 것이다.

이 때로부터 약 500 년이 지난 후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사건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온 것입니다. 가나안 앞에 당도한 백성들은 광야 2 세대들이었습니다.

[1] 이스라엘의 애굽-가나안 경로(도표 참고)

창세기 후반: 야곱과 12 아들(약 70 명)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400 년 거주)
출애굽기: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 시내산까지의 여정
레위기: 시내산에서 머물며(13 개월) 율법을 받고 제사장 나라의 언약체결
민수기: 시내산에서 떠나 모압 땅에 이르기까지의 여정
신명기: 모압 광야에서 광야 2 세대를 향한 모세의 설교
여호수아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쟁취

[2] 이스라엘에게 열린 새로운 역사의 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너머 보이는 약속의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1) v.3-4 발바닥이 닿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준다.

v.5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모세를 대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이 말씀에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2) v.6&9 ‘굳세고 용감하여라’(강하고 담대하라 – 개역개정)

v.7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전쟁을 하는데 용기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데 용기를 내라고 하십니다. 동시에 전쟁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싸우는 일과 말씀을 지키는 일에 균형을 강조하십니다.

일면으로는 땅을 주신다고 하고, 일면으로는 싸워 쟁취하라고 하십니다. 두 측면이 모두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주님을 대속주로 믿을 때 자녀됨의 구원은 선물로 얻습니다. 그러나 유업의 축복은 주님 뜻을 순종할 때 얻는 보상입니다.

[3] 광야 2 세대의 순종의 축복

광야 2 세대는 순종의 세대였습니다. 이 세대처럼 순종과 성숙의 본을 증거한 세대가 없습니다.

사사기 2:6-7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 장로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여호수아도 고별 설교에서

수 23:8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 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하십시오”

이들의 순종에 대한 평가는 감사한 것입니다. 앞으로 여호수아서를 살펴볼 때 우리들에게 쉬한 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 땅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흐르는 영적인 젖과 꿀을 위해 거룩한 싸움을 싸웁니다. 거룩한 싸움은 자신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기 위하여 자신을 비추어 볼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읽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진지하게 마음의 귀를 여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 2 세대와 같은 믿음과 순종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여호수아서를 대할 때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졌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2. 광야 2 세대는 믿음과 순종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견고해질 수 있을까요?